

2025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심의결과

- 다원 -

□ 심의일정

[1차] 행정심의 지원신청 부적격자 등 행정심의 결정사유 검토 ~ 2024.11.10.	▶	심의위원 사전 워크숍 심의방식 및 의무사항 등 안내 2024.11.20.	▶	[2차] 전문가 서류 및 토론심의 심의지표에 따른 심의위원 서류검토 및 토론심의 진행 후 개별채점 2024.11.21. ~ 12.12.	▶	[3차] 전문가 지원금 의결심의 사업 규모에 따른 예산검토 및 지원금 의결 2024.12.17
--	---	--	---	---	---	--

□ 심의위원회 명단

*가나다순

장르	심의위원
다원	권순우(취미가 대표) 권용주(작가) 이예승(미디어아트 작가) 전강희(기획자) 조주현(드리프팅 커리큘럼 디렉터)

□ 세부 선정결과

- 지원결정액은 창작지원금과 활동비(정액 3,000,000원) 및 회계검증수수료를 포함한 결정액임.

*가나다순 / 단위 : 원

연번	관리번호	선정자명(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활동비 및 회계검증수수료 포함)
1	202506015	FACTORY	미지의 운동장	35,000,000
2	202504681	고은주	팔방치기	17,000,000
3	202504492	김나현	(가)주방을 퀴어링하기(Queering the Kitchen)	35,000,000
4	202505480	김미현	Undiagnosed Rhythms	35,000,000
5	202502051	김민영	달콤한 이웃	35,000,000
6	202500577	노브컴파일	Invariable	35,000,000
7	202506473	마에니	공동의 부엌: 깃잎	31,000,000
8	202506406	문상훈	젠더	35,000,000
9	202503126	박재평	Be My Guest	35,000,000
10	202503033	사운드아트코리 아	터치-필리 Touchy-Feely	35,000,000
11	202505961	서울익스프레스 기술랩	거기에 노래가 있었다(There was a song)	35,000,000

※가나다순 / 단위 : 원

연번	관리번호	선정자명(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활동비 및 회계검증수수료 포함)
12	202504742	송주호	동굴에서 발견된 천사의 뼈(가제)	35,000,000
13	202503720	안정란	식탁 위의 구조운동 - 해저에서 행성까지	35,000,000
14	202505279	염선영	머피엄, 엘리 블라르 2인전 <Über-marionette>	33,000,000
15	202501434	이다은	보편타당한 숲 Universally Valid Forest	30,000,000
16	202500165	이미영	임기표적	34,000,000
17	202501291	이민재	Doppel-Lumpen	33,000,000
18	202501020	이선아	농사짓는 몸_듣는 산책 The Sound and move: a Farmer's Time and Landscape	25,000,000
19	202504119	이양희(LEEYAN GHEE)	IN(가제)	34,000,000
20	202503899	이우솔	부딪치는 치아들의 비평장: 덴탈 크리틱	23,000,000
21	202501405	이토명	실습 교생 정원사 Rewilding Practice(2025)	27,000,000
22	202506092	이혜원	DMZ에 땅을 사는 사람들(가제)	35,000,000
23	202500827	이희경	국제주의자의 열쇠	30,000,000
24	202502723	정다슬파운데이션	Printed In North Korea(가제)	35,000,000
25	202504666	정명우	헛, 짜가구라빵!	31,000,000
26	202503564	조승호	《흠친 시간》	35,000,000
27	202501277	최윤석	Happy Day There!(가제)	33,000,000
28	202502820	파손주의	그린 폴터가이스트(The Green Poltergeist)	34,000,000
29	202505667	한동석	그들 속 알고리즘	34,000,000

□ 심의총평

□ 다원

올해 다원 분야에서는 기존의 장르적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접근 방식과 실험적 시도가 돋보였습니다. 기존 포트폴리오에서 보기 어려운 신선한 시도들이 눈에 띄었지만, 이러한 계획이 실제로 구현 가능하고 기획 의도와 적절히 연결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특히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과거 기술 중심의 실험적 접근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기술의 융합을 넘어 리서치와 실행 과정의 깊이를 강조한 프로젝트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향후에도 실험성과 실행력을 겸비한 프로젝트들이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원예술은 단일학제 혹은 단일장르의 예술로 구분하여 지정하기 어려운 예술을 아우르는 작업의 총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점점 장르를 단순 나열하는 프로젝트 보다 다학제적이고 실험적인 작업이 늘어나 다원예술의 방향을 이해하고 작업하는 프로젝트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었습니다. 반면 기술과 결합된 프로젝트들이 적지 않았는데,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려는 시도는 좋으나 과도하게 기술지향적이거나 예술성이 전도된 계획들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지원작들 대부분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였습니다. 다양한 장르가 병렬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융합하거나 그 사이에서 과감한 실험에 도전하는 작품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작업들이 상당했으나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고자 하는지, 창작 철학 및 방법론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동료들과 협업하는 방식들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를 보았습니다.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작업들은 이 기술을 사용하는 이유와 기술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원예술의 개념은 2006년도부터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 지원 정책 사업으로 등장한 이후, 시대별로 변화해왔습니다. 다원예술은 컨템포러리 아트 장르 교차적 현상과 실험적, 미래지향적 성향이 두드러진 새로운 형식과 함께 비주류, 소수자나 인디, 언더 분야의 가치를 고려한 양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다학제적 실험과 협업을 모색하며 새로운 형식과 비평을 창안하는지를 고려하여 보았습니다. 실험적 시도를 통해 기존 예술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활동인지, 사회적 실천으로서 의제를 창의적으로 다루는데 있어 형식적인 면에서 익숙하거나 단순한 장르 융합이 아닌 새로운 만들었는지 등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다원예술 분야 지원에 대한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시도와 실험, 수준 높은 아이디어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원예술로서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며 다원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깊이 탐구하고, 다양한 매체와 장르의 실험을 통해 긍정적 시너지를 창출할 가능성을 보여준 계획을 우수하게 보았습니다.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예술가들이 많아진 점도 주목 할 만하나, 기술의 사용이나 개입이 작품의 본질과 목표를 해치지 않고 예술가의 창작력과 조화를 이루며 가능성을 제시한 작품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